

“ 현실적인 제도적 뒷받침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민주당 유용태 의원이 제16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및 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법률·청원 등 의안의 심사와 기타 국정감·조사, 예산안예비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노동전문가인 유 의원은 일선에서 일하는 환경관리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환경을 처음 배우는 심정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심스럽게 소감을 대신한다.

-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한 소감 및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 노동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성만큼이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환경과 노동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살아 숨쉬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사는 터전인 환경을 보존하고 산업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문제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조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고쳐 나갈 때는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공청회를 활성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연구하는 환경노동위원회가 되도록 최대한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노동·환경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익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협조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제16대 환경노동위원회가 진정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추후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소속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

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실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때 환경관리인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이로 인해 환경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환경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다면

환경문제는 19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을 최우선시 하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밀려 도외시되어 오다 80년대 후반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돼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했었던 선진국들은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해 온 반면 우리는 어려운 경제현실로 인해 그 피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이에 제대로 대비해 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환경은 국경의 구분은 물론 인종을 떠나 지구촌 전체의 공동과제이며 당연 현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맑은 공기, 맑은 물, 푸른 자연을 잘 보존해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와 재생산에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잘 가꾸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



환

경관리인의 제도적 법적 위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가능한 환경관리인들의 위치가 기업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제완화 차원의 의무고용제도 완화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이에 역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후 법 제개정시 환경관리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기업주들 역시 기업운영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환경이 우선시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왼쪽부터 이성호 본 연합회 회장, 유용태 위원장, 정경희 본지 편집장

-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요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새만금간척사업'입니다. 이미 방조제공사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계속해 개발을 해 나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갯벌을 보존해하기 위해 공사를 중단하고 복구계획을 세워야 하느냐를 놓고 첨예한 논란이 거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만간 환경검토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 '4대강 수질개선 특별대책'이 단계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우리의 식수원인 4대강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이 특별대책은 4개 권역을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강에

이어 낙동강수질개선특별대책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올해 안으로 금강과 영산강 수질개선특별대책을 수립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내 환경실태를 나름대로 평가하신다면

우리의 환경실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의 정도, 인식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고 계속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정부와 환경관련 단체의 노력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환경에 대한 우리의 국민들의 인식과 실천 정도는 그리 높지 않

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동강댐 문제에서도 보듯 이제는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는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해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연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관리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할 것으로 압니다.

- 잦은 법 개정 등 환경오염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인들의 어려움이 큼니다. 관리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을까요?

환경관리인 여러분들께서 특히 IMF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무고용제도가 완화되어 더욱 어려움이 크실 겁니다.

여기에는 경제위기에 따라 관련산업의 위축과 함께 환경산업체의 영세성과 법적 뒷받침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인 여러분의 노력과 함께 환경부,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4월 환경부에서는 환경관리공단내에 국가환경정보센터를 개소하고 '일자리찾아주기운동'을 전개해 6천여 명이 구직신청을 한 가운데 8백여 명이 취업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관리인의 제도적 법적 위상확보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환경관리인들의 위치가 기업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제완화 차원의 의무고용제도 완화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이에 역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후 법 제개정시 환경관리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기업주들 역시 기업운영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환경이 우선시되어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전문가 인력양

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1만3천여 명에 달하는 환경관련학과 인력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산업의 위축 등으로 인력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현 산업계의 문제도 있으나 더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수용인원을 감안하지 않고 관련학과의 인가를 대거 내준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장성이 좁은 현재의 산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보다는 환경관리인들 자신이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생활활동에만 안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문연구 및 관련산업의 개발 등을 통해 환경관련 사

시장성이 좁은 현재의 산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보다는 환경관리인들 자신이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생활활동에만 안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문연구 및 관련산업의 개발 등을 통해 환경관련 사업을 키워 나감으로써 환경전문인력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시장성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을 키워 나갈으로써 환경전문인력들의 일자리를 확대 하고, 시장성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는 소각로시스템의 개발이나, 대기분진처리시스템의 개발 등 엔지니어링 개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었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보다 산업의 고도화·다변화 추세에 맞춰 환경기술자격제도를 신설해 환경영향평가사, 토양분석사, 환경정보검색사, 환경컨설턴트 등의 다양한 자격들을 신설함으로써 전문인력들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전국환경관리인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인 여러분이 일선현장에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만큼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할 것이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제도가 미비한 것에 기인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의 준비부족이 원인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현실이 범법자를 양산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들은 중지를 모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갈으로써 환경관리인 여러분은 물론 환경관련업체가 법 테두리 안에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일선에서 땀 흘리며 환경보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환경관리인 여러분들이 더욱 권익을 보호받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용태 위원장 주요 약력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2선)

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구당 위원장

1938년 7월 2일생

경기도 여주 출생

기독교

· 학력

1962년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1986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일본의

산업안전위생보건법과 우리나라의 산업안

전보건법 비교 연구)

1995년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고용보험

법제에 대한 연구-실업대책 관련)

· 경력

1960~1961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1971~1981 노동청 공보담당관, 근로기

준관

1981~1996 한국산업훈련협회 회장

1982~ 월간 '노동' 발간

1986~1987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중

앙대 사회개발대학원 강사

1988~

1992~ 한국산업연수원 원장

1994~ 한국노사연구원 원장

· 정당경력

1988~1996 민정당, 민자당 동작을 지구

당 위원장

1996~1997 신한국당 동작을 지구당 위

원장

1996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1997~1998 한나라당 동작을 지구당 위

원장

1998.9 새정치국민회의 동작을 지구

당 위원장

1999.9~2000.1 국민의회의 신창당 발기인

2000.1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